

# 방글라데시 로힝야 긴급구호사업 경과보고서 (2018. 5월 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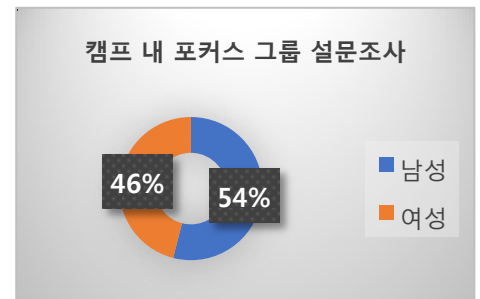


## 1. 사업 개요

기관명	옥스팜코리아 (OXFAM IN KOREA)		
사업명	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긴급구호 지원 사업		
사업기간	2017. 9. 7-2019.3.31 (19개월)	지원금타켓규모	US 23,450,000 달러
사업대상	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(Cox's Bazaar) 난민캠프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687,000 명 * 지속적으로 옥스팜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 23만 명		
사업내용	난민 캠프 내 기본적인 안전 보장을 위한 가로등 설치, 현물 지원 사업 (Protection) 식수 및 위생 사업 (WASH), 긴급 식량 제공 및 생계 지원 사업 (EFSVL)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옹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 (Gender & Advocacy)		

## 2. 사업 결과

2017년 8월부터 방글라데시아로 넘어온 로힝야족 난민 23만 명 대상 긴급구호 제공	
Protection :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인 안전 보장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	
<b>Protection 활동</b> <b>[① 설문조사 결과]</b>	<p>옥스팜은 2017년 11월, 로힝야족 실태와 니드에 대한 조사를 위해 23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, 66명 로힝야 난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.</p> <p>그 결과, 조명시설의 부족으로 여성, 남성 모두가 밤이 되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,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난민 캠프 내의 환경은 납치,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.</p>
<b>Protection 활동</b> <b>[② 가로등 설치]</b> (발루칼리 난민캠프)	<p>옥스팜은 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보장을 위해, 발루칼리(Balukhali) 캠프 내에 4월 말 기준 <b>25개의 태양광 가로등 설치</b>를 완료했으며, 캠프 내의 난민들이 직접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. 이를 통해 불빛이 없는 밤 시간, 난민 소녀 및 여성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납치, 강간 등 폭력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음.</p>



\*발루칼리 난민캠프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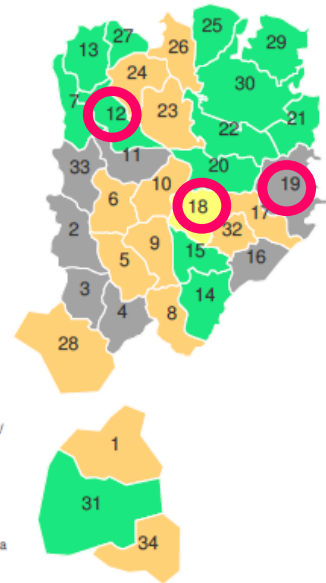


**Protection 활동**  
[③ 보호위원회 구성 및 추가 가로등 설치 계획]

옥스팜은 발루칼리 난민캠프 가로등 '수혜자 그룹(로힝야 난민 남성7명, 여성7명)'으로 구성된 보호위원회(Protection Committee)의 발족을 지원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음. 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발루칼리 내 설치된 가로등의 관리를 관장하고 타 캠프에서 진행중인 추가 가로등 설치 작업을 돕는 것이다. 현재, 보호위원회는 12번 난민캠프, 18번 난민캠프, 그리고 19번 난민캠프에서 활동중이다.

Map 1a | Ukhia completeness by site/zone

- 1 Hakimpara
- 2 Zone ZZ
- 3 Zone ZA
- 4 Zone YY
- 5 Zone XX
- 6 Zone WW
- 7 Zone UU
- 8 Zone TT
- 9 Zone SS
- 10 Zone RR
- 11 Zone QQ
- 12 Zone PP
- 13 Zone OO
- 14 Zone NN
- 15 Zone MM
- 16 Zone LL
- 17 Zone KK
- 18 Zone JJ
- 19 Zone II
- 20 Zone HH
- 21 Zone GG
- 22 Zone FF
- 23 Zone EE
- 24 Zone DD
- 25 Zone CC
- 26 Zone BB
- 27 Zone AA
- 28 Thangkhal / Burmapara / Tasnmarkhola
- 29 Kutupalong RC
- 30 Kutupalong MS
- 31 Jamtoli
- 32 Balukhal MS
- 33 Zone VV
- 34 Moynarghona / Bagghona



**WASH (Water Sanitation Hygiene) : 식수 및 위생 사업**

**WASH 활동**  
[식수]








1. 지표수처리장(surface water treatment) 설치를 통해 매일 39만 3천 리터의 물 공급
  - 하루 27만 3천 리터 식수, 운치프랑(Unchiprang) 캠프 내 25,500 난민 및 방글라데시 주민들에게 공급
  - 하루 12만 리터, 나야파라(Nayapara) 캠프 내의 지표수처리장을 통해 공급



2. 캠프 내 긴급구호 물류창고(warehouse)를 설치하여 우기시 파손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도시설 및 위생시설 부품조달



3. 물 트럭을 통해 하루 12만 5천 리터의 물 제공
  - 식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운치프랑(Unchiprang)캠프 난민 대상으로 물트럭을 통해 11만 5천 리터의 물 공급. 이동 캠프(makeshift camp)에서는 하루 1만 리터의 물 공급
4. 총 614개의 물펌프(관정) 설치 (쿠투팔롱, 발루칼리, 운치프랑 대규모 캠프대상)
  - 얇은 관정 (Shallow Tube well) 412개
  - 깊은 관정 (Deep Tube well) 202개

<p><b>WASH 활동</b> [위생]</p>   	<p><b>1. 임시 화장실 3,166개, 세면 및 샤워시설 1,195개 설치</b> 지속된 폭우로 인하여 수백 개의 화장실이 파손됨. 옥스팜은 화장실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여성전용 샤워시설 80개를 발루칼리(Balukhali) 캠프에 설치. 우기에 대비하여 홍수 위험 감소에 최적화된 화장실 8개 및 오물처리장을 쿠투팔롱(Kutupalong) 캠프에 설치.</p> <p><b>2. 총 1만 5천 879개의 위생키트 및 5천 276개 샤워키트 배급</b></p> <p><b>3. 우기 시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점검 실시</b> 옥스팜은 깨끗한 식수와 위생 물품 배급 (유아/아동 변기 4,241개, 여성용품 500개)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, 폭우로 인해 화장실의 오물이 넘쳐 난민들이 심각한 오염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시설 점검 실시.</p> <p><b>4. 우기 시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난민 대상 위생 교육 진행</b> 로힝야 난민 556명을 선발하여 위생교육진행 후 위생전문봉사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. 안전하게 식수를 이용하는 방법, 화장실 관리 교육, 식량 위생 관리 교육, 깨끗이 손 씻는 방법, 그리고 전염병 인지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위생전문자원봉사자 556명은 캠프 내 난민들 대상으로 기초 위생 교육 1만 6천 4백회 진행.</p>
<p><b>EFSVL (Emergency Food Security and Vulnerable Livelihoods) : 식량 및 생계지원</b></p>	
<p><b>EFSVL 활동</b> [식량 및 생계지원]</p> 	<p><b>1. 식량 및 생계지원팀을 통해 쿠투팔롱, 발루칼리 난민캠프 내 2만 3천 568 가구 대상으로 긴급 식량 바우처 제공</b></p> <p><b>2. 쿠투팔롱 캠프와 인접한 시장 내의 29개의 식량 판매 상점들과 파트너십 체결</b></p> <p><b>3. 우기시즌에 맞추어 옥스팜 식량 및 생계지원팀이 지급하는 식량키트의 내용을 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</b></p>
<p><b>Advocacy and Lobbying : 캠페인 및 옹호활동</b></p>	
<p><b>Advocacy 활동</b> [캠페인 및 옹호활동]</p> 	<p>방글라데시 정부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토대로 옹호활동 진행</p> <p>옥스팜 옹호활동은 생명을 살리는 구호활동을 더 많은 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며, 로힝야 난민 긴급구호의 확대를 고려하여 옹호활동 전략에 아래와 같은 활동을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역 옹호 캠페인 : 옥스팜은 ASEAN과 SAARC등의 국제기구 및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정부와 연계하여 로힝야 난민에 대한 책임 분담, 공동 로비 활동(lobbying) 및 정치적 개입 등을 모색하고자 함</li> <li>● 글로벌 옹호 캠페인 : UN 국제기구, 정부관계자 미팅등을 통해 로힝야 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난민들의 안전, 존엄성, 인권존중을 위한 옹호활동 진행</li> </ul>